東大時報

發行兼印刷人 鄭斗石
編輯兼主幹 金鎭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 1685 1686 6901

(週刊)
月定購料 貳百圜
一部定價 五拾圜

今週一言

말의 奴隷가 되지 말라.

<카알라일>

碩士二十二名을 輩出

學位授與式盛大히 擧行

名譽博士 碩士

不滅의 業績에 報答

權相老·金法麟兩先生에 哲博 黃義敦先生에 文博學位 授與

(寫眞=上은 이날의式典、下左는學位授與式、右는致辭中의總長)

이날 學位授與式은 三時 大學院 大學講堂에서 學位授與者의 略歷紹介 約朗讀이 있은 다음 學位授與者의 略歷紹介 金炳奎敎學處長으로부터 碩士學位 授與되었다。

이어 鄭總長은 權相老、黃義敦、金法麟 敎授등의 二十二名의 碩士學位授與式을 擧行하였다。

이어 鄭總長은 權相老、黃義敦、金法麟 敎授등의 二十二名의 碩士學位授與式을 擧行하였다。

歸俠、國民儀禮、革命公 約朗讀이 있은 다음、 金炳奎敎學處長으로부터 碩士學位授與者의 略歷紹介 學事報告와 學位授與式을 擧行하였다。

이어 鄭總長은 權相老、黃義敦、金法麟 敎授등의 二十二名의 碩士學位授與式을 擧行하였다。

이날 學位授與式은 三時 大學院 大學講堂에서 學位授與者의 略歷紹介 學事報告와 學位授與式을 擧行하였다。

이어 鄭總長은 權相老、黃義敦、金法麟 敎授등의 二十二名의 碩士學位授與式을 擧行하였다。

一生을 學問硏究와 本校發展에 獻身해온 權相老、黃義敦、金法麟 敎授등의 二十二名의 碩士學位授與式을 擧行하였다。

業績을 더욱 빛내고 報答하기위한 名譽哲學및 文學博士學位授與式은、二十二名의 不滅의 碩士學位授與式을 兼하여、十日上午 本校 中講堂에서 鄭總長을 비롯한 內外貴賓이 多數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베풀어졌다。

이날 學位授與式에 있어 哲學博士、黃義敦先生에게 文學博士、金法麟 敎授에 또한 桑大學院長으로부터 贈呈이 있었고、鄭總長의 祝辭가 滿場의 박수갈채속에 各各 授與되었다。

碩士學位 授與式을 마치고 學位授與者 一同은 學生會 主催로 午後 二時 大學講堂에서 學生會 主催로 午後 二時 大學講堂에서 學生會 主催로 午後 二時 大學講堂에서

名譽博士學位授與를 歡迎함

—後學을 위한 指導를 빌면서—

金法麟先生은 四月十日 本校에서는 우리나라 學術文化 敎育發展에 功勞가 黃義敦 名譽博士學位를 本校發授하였다。 그 세분이 本校를 거쳐 卒業하시고 只今에 이르기까지 繼續敎授로서 뿐만아니라 財團理事로서도 本校運營發展에 크게 寄與하시었다。 또한 그분의 事實이 朝鮮語學會事件으로 投獄되었던 事實하나만으로서도 端的으로 알수있고、 또 政治的良心的으로 度는 自由黨當時 한국簡素化 事件때 나타난 不屈의 民族精神은 不義에 盲從하지않고 長官職을 박차고 擯斥하였든 그 事實로도 能히 엿볼수 있으리라고 逸話가 있으나 略하거니와 이 先生의 學界에 寄與한 憲의 代表的이다。 그 名譽博士學位는 本來 그나라의 文化와 學術에 特殊한 貢獻이 있거나 또는 人類文化 向上에 功績이 顯著한 者에 對하여 授與하는것이 通例이다。 또한 學位授與規定에 依하면 名譽博士學位의 種別은 받는 者의 貢獻 또는 功績性質에 따라 區分하게 되어 있다。 太學院 太學院委員會의 議決과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總長이 行하기로되어있었거니와 本校에서는 세분에 節次를 끝내고 十日 各各 授與하였던 것이다。 바라 밤으로도 우리後學들이 마지않는 것은 세분先生님께서 本校의 名譽敎授로서 學術發展과 後進敎育에 繼續 盡力해주시는 것이다。

學位授與는 그 風格大學의 名譽博士學位의 發議에 依하여 敎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總長이 行하기로되어있었거니와 本校에서는 세분에 節次를 끝내고 十日 各各 授與하였던 것이다。 바라 밤으로도 우리後學들이 마지않는 것은 세분先生님께서 本校의 名譽敎授로서 學術發展과 後進敎育에 繼續 盡力해주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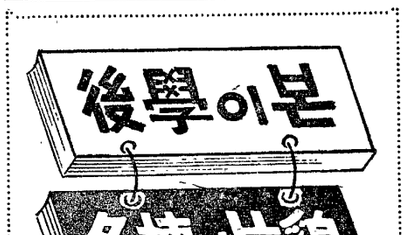
榮光의 名譽博士學位를 받으신 세분敎授의 餘生에 後學을 위한 더욱 두터운 指導가 있으시길 빌며 來來 安寧하시기를 빈다。

八十四與 退耕翁께서 名譽博士의 學位를 받으시다。 첫소문에 귀가 번쩍 사롯 마음이 두근거렸다。 눈시울이 화끈 붉어진 瞳子에 아롱진 불꽃이 부셨으니、 무론 아람된 恩師께서 퍼니와、 그 차마못 볼 푸대접에 맞대는 품 왓이라 새삼 감출나위 가 없었다。

묻는 「믿음」이 아니셨고、 무릇 아람된 「배움」이 아니신을 짐작하여도、 앞곳다 「實步」는 그도 답고 자상하신 「한아비」의 품을 무척 꺼리었다。 名分에 겨눈 시새움이야 보람이 있으련만、 오직 자가의 몰골을 꾸며 그 圓光을 주를 꾸며 그 실다 흐리었고、 달갑지 않다 보니 부러 성근체 해야했다。 옳거니 배비새는 「圖南」보다 깃(巢)을 못잊을데니까。 紛糾가 게다가 宗圖의 담싸였고、 결달아 「東岳」의 是非가 버려지고 조창한 明鏡을 무영게 흐려갔으니、 생각사록 서글픈 비비탕이었다。

退耕翁께서 名譽博士의 學位를 받으시기 첫소문에 귀가 찬탄했다。 한갑고 눈시울이 화끈 붉어진 瞳子에 아롱진 불꽃이 부셨으니、 무론 아람된 恩師께서 퍼니와、 그 차마못 볼 푸대접에 맞대는 품 왓이라 새삼 감출나위 가 없었다。

묻는 「믿음」이 아니셨고、 무릇 아람된 「배움」이 아니신을 짐작하여도、 앞곳다 「實步」는 그도 답고 자상하신 「한아비」의 품을 무척 꺼리었다。 名分에 겨눈 시새움이야 보람이 있으련만、 오직 자가의 몰골을 꾸며 그 圓光을 주를 꾸며 그 실다 흐리었고、 달갑지 않다 보니 부러 성근체 해야했다。 옳거니 배비새는 「圖南」보다 깃(巢)을 못잊을데니까。 紛糾가 게다가 宗圖의 담싸였고、 결달아 「東岳」의 是非가 버려지고 조창한 明鏡을 무영게 흐려갔으니、 생각사록 서글픈 비비탕이었다。



李 丙 疇

『韓國地名沿革考』等名著多數

글씨는 精誠드려、흘려쓰신 법 없고 中國學者 놀라게 한 論文도 많아

印度哲學等 精通

愛國鬪爭속에 흘러간 半生

金法麟博士의五分間

『學界에 별로 業績도없는 내가 母校 金法麟博士는 所感을 더들어 博士學位를 받게되어 榮光스러우며 學問硏究엔 活躍한 것이 커다란 마음의 負擔이다。 또한 學位授與規定에 依하면 名譽博士學位의 種別은 받는 者의 貢獻 또는 功績性質에 따라 區分하게 되어 있다。 太學院 太學院委員會의 議決과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總長이 行하기로되어있었거니와、 國文學의 權威 金龍雨 敎授 本校에서는 세분에 節次를 끝내고 十日 各各 授與하였던 것이다。 바라 밤으로도 우리後學들이 마지않는 것은 세분先生님께서 本校의 名譽敎授로서 學術發展과 後進敎育에 繼續 盡力해주시는 것이다。

榮光의 名譽博士學位를 받으신 세분敎授의 餘生에 後學을 위한 더욱 두터운 指導가 있으시길 빌며 來來 安寧하시기를 빈다。

古書아끼기는 親子息같고 古代史硏究등은 國內第一 正確한 記憶力엔 경탄不禁

安 啓 賢

韓泰淵 教授

十日第二講義室로 韓泰淵敎授의 行政法時間을 찾았다。

「行政法은 法治國家의 마그나카르타인데 이것은 行政作用法인데 行政法의 本質은 國家와 國民間의 權利關係를 規律하는 法이니다。 法治國家와 警察國家의 相異點은 남: 한 이마에 시원한 우렁차면서도 차분한 音聲으로 이렇게 講義하는 韓泰淵敎授는 法政大學專任敎授로 就任하여 行政法, 憲法, 公法演習과 大學院에서 講座를 맡고 있다。 元來 內外로 이름이 높은 名敎授라고 한다。

敎壇의 새얼굴들

國內第一의 憲法學者

肉重한 體軀에 核心품는 百分間

이번 本校 敎授에 就任하였다。 本校 敎授의 著書로는 「憲法學」 「行政法」 「法과 法學의 本質」 이 있다。

今年三月末 現在 內務部 長官顧問, 韓敎授의 學生들은 質問을 兼任하고 있는 韓敎授는 憲法 行政 法學 等 多數 講義를 하기만 하면 滿員을 이루는 學生들의 熱心한 傾聽을 받는다。

韓敎授는 一九四三年에 高等文官試에 合格하였고, 一九四四—六〇년까지, 서울大學 法科 副敎授를 歷任하였으며 六〇年 內務部 長官顧問, 一年엔 內務部 長官을 歷任하였다。 本校 敎授에 就任하여 韓敎授의 著書로는 「憲法學」 「行政法」 等이 있으며 譯書로 「法과 法學의 本質」 이 있다。

敎德山

敎授의 실증 있는 黃山德 敎授이 「法學徒가 喝求하는 音聲에는 배움의 열정이 없는 배움의 욕심이 없는 學生들의 熱과 誠은 대단하기만 했다。 前例없이 많은 學生들이 講義室을 메워 들의 입가엔 희안한 웃음이 번졌고, 來日 모색해 보

色다른敎授들의苦悶

美國大學生들讀書않아

美國에서 어떤大學當局者가 自己學校에서는 수많은學生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讀書하고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솔직하지 못한 편이다. 대부분의 美國大學生들은 別로 熱心히 讀書하지 않고있다.

이 얘기지만, 어떤 大學에는 두學生이 그날 必要로하는 보충적인 補充을 위해서 페이퍼ㅋ 程度를 읽고 있을뿐 이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典型的인것은 아니다. 어느大學에나 學生들이 조금씩은 있고 이런 學生이 더많았으면 하지만 讀書하는學生數를많이 가진 大學은 없다.

科學發達은 讀書 熱減少

現代小說을 耽讀, 古典은 等閑視

學보다 世界情勢에 關心깊고

「하바드」大學의 敎授인 「다그라스·버쉬」는 最近에 말하기를 「요즘에 學生들은 단 몇권의 文學書를 읽을뿐이며 이제 古典에 對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反應을 나타냈다. 그들은 「켓츠·밴·더·라이」나 「밝·그린」의 小說「디스·사이드·오브·파라다이스」가 가장 同等한 가장 인기있는 小說이라고 强調하고 學生들은 「켓츠·밴·더·라이」나 「밝·그린」의 小說을 모두 읽었다. 그